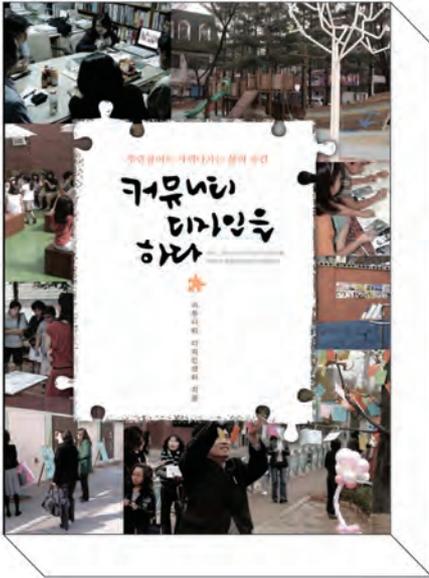


갈등, 소통 그리고 공존의 이야기

# 견고 싶은 도시

01 02

2010



지은이 | 커뮤니티디자인센터

주민참여로 가꿔나가는 삶의 공간

##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10년 전 건축, 도시, 조경을 전공으로 삼는 이들이 모여 커뮤니티 디자인센터라는 모임을 꾸리고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마을 만들기란 무엇인가?', '커뮤니티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는가?'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로 끊임없이 질문을 발전시켜왔고 우리만의 답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환경공원이냐 놀이터 리모델링과 같은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해 우리가 던진 질문과 답을 실험하고 다듬는 중요한 현장경험이었다. 이 책 안에 그동안의 질문과 대답, 우리의 실험을 담고자 했다. -머리글 중에서

**키워드** \_ 건축, 도시, 조경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행정이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2009년 11월 23일 출간 / 232면 / 무선제본 / 율리러 / 신국판 / 15,000원

키워드로 바라본 2009 한국도시사회

공간기부, 작은 것들의 혁명, 에너지 시민 | 지역개발 마피아 집단과 맞서자 등 | 두바이, 재개발, 마을만들기 디자인, 재개발, 마을·마을계획 | 도시심리학 | 재인간화, 시청자, 공감능력 | 나의 2009년 도시생활 키워드



갈등, 소통 그리고 공존의 이야기

# 걷고 싶은 도시

01'02 2010

키워드로 바라본 2009 한국도시사회

공간기부, 작은 것들의 혁명, 에너지 시민 | 지역개발 마피아 집단과 맞서자 등 | 두바이, 재개발, 마을만들기  
디자인, 재개발, 마을·마을계획 | 도시심리학 | 재인간화, 시청자, 공감능력 | 나의 2009년 도시생활 키워드



「걷고 싶은 도시」는 (사)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잡지입니다

# CONTENTS



06



44



50

도시연대 01\*02

JANUARY FEBRUARY 2010



사진 최성용

## 04 신년사

도시연대의 새날 \_ 김기호

## 06 특집 | 키워드로 바라본 2009 한국도시사회

- 공간기부, 작은 것들의 혁명, 에너지 시민 \_ 이영범
- 지역개발 마피아 집단과 맞서자 등 \_ 조현세
- 두바이, 재개발, 마을만들기 \_ 정석
- 마을만들기 디자인, 재개발, 마을·마을계획 \_ 박소현
- 도시심리학 \_ 윤인숙
- 재인간화, 시청자, 공감능력 \_ 맹기돈
- 나의 2009년 도시생활 키워드 \_ 차희영

## 27 도시스케치

우측통행 \_ 김정대

## 28 풍경 공식

공정의 풍경 읽기 \_ 김연금

## 36 도시연대 Hot Issue

커뮤니티 디자인센터 신임 센터장 김연금박사 인터뷰 \_ 최성용

## 44 이 도시를 걷다

복거니를, 어디에 살 것인가 \_ 이호정

## 50 도시에 살다 \_ 안인섭

그 날처럼 그리움처럼

## 54 회원탐방

'참된 삶'을 고민하는 힘찬 언어, 한수경 회원 \_ 맹기돈

## 58 조현세의 200자 세상읽기 \_ 조현세

## 60 사무국 소식

www.dosi.or.kr

통권 56호 등록일 1998. 7. 10 등록번호 서울마 02727

편집인 김은희 발행인 김기호

발행처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발행일 격월 10일

주소 서울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아파트 908호

전화 02-735-6046 팩스 02-735-6045

편집디자인/제작 (주)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즈(02-335-0615)

# 도시연대의 새날

회원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꿈이 하얀 눈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참 어려운 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이 곳곳이 도시연대를 지지해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시연대를 통하여 꿈꾸는 것은 바로 새날입니다. 그리고 그 새날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가능한 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새날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그 날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 새날을 만들어 가는 것에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지난 해에도 도시연대는 커뮤니티디자인센터(CDC: community design center)의 사업과 경관협정사업 등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새날을 만들기 위하여 애써왔습니다. 이런 사업의 결과는 지난 11월 책자로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 새날이 되면서 이러한 새날 만들기의 관심과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지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도시연대는 사무국과 사업분과의 활동을 통하여 새해에도 더욱 흥미있고 보람있는 삶의 터 만들기를 회원여러분의 참여와 주민, 그리고 전문가 및 행정의 참여를 통하여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새해 좋은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 공간기부, 작은 것들의 혁명, 에너지 시민

이영범 | 도시연대 운영위원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2009년 한 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비유한 사자성어로 교수신문은 '방기곡경(旁岐曲경)'을 선정하였다. 바른길을 쫓아서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도시는 세상 살이의 반영이다. 그래서 올바른 수단을 통해 순간의 이익을 탐하는 세상살이는 분명 왜곡된 도시를 만들기 마련이다. 뜻을 바로 세우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일이 쉽지 않은 터인데,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등에 직면한 이 도시를 방기곡경을 으뜸의 가치로 삼아 산다면 우리에게 도시는 절망의 삶터로 전락할 것이다.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 미래의 희망을 심는 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소통과 합의, 그리고 실천의 가치를 복

원하여 '강구연월(康衢煙月)'의 평안함을 도시에서 수확할 수 있는 2010년이 되길 희망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핵심어로 공간기부, 작은 것들의 혁명, 그리고 에너지 시민을 꼽았다.

## | 공간기부 |

도시의 변화를 꿈꾼다면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 그 시작을 공간기부에서 찾고 싶다. 자본의 밀도가 강화되고 철거재개발이 보편적 가치가 된 도시에서 주변부 사람들의 삶은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마저도 확보하기 어렵다. 도시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미혼모, 독거노인, 결손가정의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등의 노약자와 소외계층 역시 생존을 위한 공간의 요구가 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위해 공공부문이 복

지차원에서 삶터공간을 제공하는 한계를 목격한 지 오래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이나 장애우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룹홈, 다문화가정의 이주외국인들이 생활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주민지원센터, 동네마다 작은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텃밭, 문화예술로 오래된 도시기능을 되살려내는 아트팩토리 등은 공유와 공존의 가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공간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권이나 땅을 기부하자.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기부하지는 이야기이다. 당장 쓸모가 없어 방치된 찌투리 땅이나 작고 노후화된 주택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기부하면 시민단체에서 외부의 스폰서를 확보하여 공간을 리모델링한 뒤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공간기부의 기본 틀이다. 공간을 기부한 사람은 일정기간동안의 사용권을 기부한 대가로 자신의 공간이 물리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다. 당장 쓰지 않는 공간을 기부하여 사회적으로 정착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계층의 간극도 줄일 수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와 공존의 가치를 서로 나누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 작은 것들의 혁명 |

거대한 계획과 개발은 도시를 모두의 삶터로 바꾸는 바른 변화가 아니다. 대안으로서 작고 사소한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꿈꿔도 좋을까? 거대한 도시에서 작고 사소한 것은 이제 설 땅마저도 위협받는다. 작은 것들은 유연하고 민첩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작기에 미약하다. 작은 공간 mirco-urban과 작은 비즈니스 small business 가 어떻게 하면 거대한 가치가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해나가는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을까?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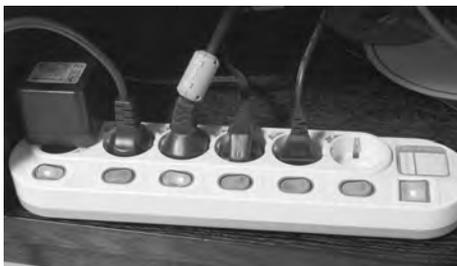
## 지역개발 마피아 집단과 맞서자 등

조현세 | 도시연대 부이사장 / 도시계획기술사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대, 즉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작은 것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일은 FMC(fixed-mobile convergence)를 통해 가능해진다. FMC는 물리적 실체와 정보화의 결합을 의미한다. 일본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동 상가를 예로 들어보자. 정보화를 통해 외국인이라는 특정 사용자의 선택권을 위한 정보의 다양성과 깊이, 그리고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명동상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작은 상가들의 모여 있는 명동이라는 특정한 물리적 영역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다. 원거리 홍보가 가능해지고 홍보와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됨으로써, 작은 상가(micro-urban)의 작은 비즈니스(small business)가 네트워크화된 실체로서 명동상가의 영역성이 강화된다면 최고의 땅값에 걸맞은 개발을 호시탐탐 노리는 도시의 거대담론에 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 시민

기후변화에 어떻게 도시가 대응할 것인가는 도시의 생존을 결정하는 열쇠이



다. 런던을 위시한 세계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명 정도의 중소 규모 도시 역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래의 도시 청사진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2004년 발표된 런던플랜이나 사르코지 플랜으로 불리는 파리수도권 마스터플랜 역시 도시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전력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제도나 정책 차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없다면 도시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미시적 일상에서 에너지의 문제는 생산과 소비영역에서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 자연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하는 에너지 시민(energy citizen)으로의 삶은 무엇일까. 여름은 여름답게 덥게 살고 겨울은 겨울답게 조금 춥게 사는 것이 에너지 시민으로서의 기본생활이다. 안 쓰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빼거나 전원스위치를 끄는 작은 노력 역시 에너지 시민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일상적 실천이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정치적 이슈를 넘어 경제적 힘으로 성장할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의 배출권이 국가를 넘어서 개인의 영역에서도 실행될 날이 멀지 않았다. 2010년에는 우리 모두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시민으로 새롭게 탄생하길 희망한다. 

### ‘지역개발 마피아 집단’과 맞서자

한 시절 ‘도로마피아’, ‘SOC마피아’가 존재하여왔다. 지역구 챙기는 국회의원부터 지역의원, 도로건설쪽 토착공무원, 토목업자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집단이익을 추구한 것을 빗댄 말이다. 거기에 각종 학술단체, 협회, 엔지니어링업체까지 휩쓸려 줄속타당성 조사부터 내부적으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서로 야합하듯 마피아 보조를 해왔다. 지방도로 뿐만 아니라 개항조차 못한 공항, 혁신도시는 지난 정권의 일이었고, 이제는 4대강 개발 또한 그러한 마피아조직이 다시 시장을 장악해 나갈 조짐이 보여 두렵다. 마피아 집단에 휩쓸리면 독점 구조의 생리상 가격 부풀리

기, 환경평가 꿩맞춰서 무시하기, 소수 지역 주민 참여 막고 의견 깔보기는 피할 수 없다. 4대강의 경우 대기업들이 가격 담합 후 지방 업체에게 재채하청을 하는 것이 그 지역경제에 보탬인지? 그나마 지방의 고용창출로 볼 것이냐? 집행당국이나 감사원 등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시민의 조직적 감시가 절대적이다. 한편 도요새 한 마리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법제도와 절차는 그런대로 정착되어 왔다. 다만 더 많은 차선의 대안을 만들어 상대쪽도 선택의 폭을 갖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경우도 하지도 못할 대운하에 큰 목소리 낼 것이 아니라 2대강 정도만 우선해보고, 나머지는 상류 쪽 작은 소하천부터 먼저 해



야 한다는 대안의 제시는 보다 조직적이지 못했다. 이제 우리 도시 활동 NGO쪽은 지역 마피아들에게 과감하게 맞설 차례이다. 입법과정에 전문 교수님 모셔서 개입을 하고, 예산책정과 집행에도 귀찮게 할 정도의 간섭자로 나서야 한다. 입법안에 주민참여에 대한 조항 한줄 더 넣고, 예산편성과 안에 지역 마피아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숨기지는 아니했나? 주민의 이주정착에 소홀함이 없나 등에 대들어 따지는 활동가가 필요하다. 즉 대안-Alternative을 만드는 기술적 소양을 갖춘 활동가로 키워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가 양성을 위한 대학에서의 인문학에 접목한 기술 강좌도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전문대학원'도 별도로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가면을 쓴 마피아들이 먼저 등록을 할까?

### 기능과 역사를 죽이는 디자인과 경관계획

각 지자체마다 무분별한 싹쓸이형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디자인으로 포장하는 기술만을 경쟁시키고 있다.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만들어온 그 골목길과 삶의 터전인 판자집, 현지 개량형 국민주택들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아니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거리의 역사성, 즉 골목마다 생활이 다른 도시들의 맥락을 똑같은 잣대로 '디자인 코리아', '한강르네상스' 등의 거창한 이름으로 모든 디자인을 통일시키려 하고 있다. 자생적 디자인을 토대로 주민참여, 즉 공동체의 삶을 어떤 철학으로 담아내며, 하나의 생명체로 연속화 시키려는 노력은 저 멀리 있다. 밖에서 보는 경관-그 풍경을 위하여 햇빛 한줌 안 들어오는 안방을 만들면서까지 경관계획을 최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건축조례 중에 일조확보를 위한 건물 높이 제한에서 건물 인동거리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슬쩍 바꿨다. 아파트 몇 세대 더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10층 높이 경우 24m로

완화된 인동거리는 저 멀리 활동내용정도를 식별 해왔던 프라이버시 거리가 이젠 '얼굴인지' 까지 가까워진 것이다. 동짓날 2시간 햇빛을 받는 일조, 통풍 등에 관한 악영향에 대한 개악의 조례에 대해 시민단체부터 학회쪽의 연구들은 어찌자고 숨을 죽이고 있었나? 자탄을 해본다. 물량위주의 공급에 기본마저 흔들리고, 현혹하는 치장술에 급급해 실제생활에 밀착하는 주민 참여형 디자인은 역시 고통스럽더라도 교육해가며 해내야 할 과제다. 기능도 살리는 「서비스 디자인」과는 동떨어진 전시형 디자인이 도시의 우월성을 죽이고 있다.

### 덜 빛나고 느린 것이 멋있고 빠른 것이다

영월에 있는 '별마로천문대'는 언젠가 도시화와 전력개발이 떨어진 지역-



어쩌면 미개발된 북한지역 산속으로 옮겨야 할 판이다. 미국 천문학자 허블이 우주팽창을 발견한 장소로 유명한 백년 역사의 윌슨천문대는 인근 로스엔젤레스의 야광으로 인해 밤하늘이 6배나 밝아져 문을 닫았다고 한다. 강원도 일대 야간스키장, 관광지 개발도 그렇지만 소도시의 시내쪽 번쩍거리는 네온사인 간판은 물론 갖을 안 썩은 가로등으로 인한 불빛의 아우성이 별빛을 희미하게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있는 전봇대마저 뽑아버린 순천만, 인공 빛을 최대한 줄여 '깜깜한 밤 사업'에 '차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신안군 중도의 실험적 '슬로시티'의 실험을 대도시에서 그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물론 대도시에서 일정시간대에 조명쇼를 해보이고 성탄트리도 세우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가로등이 밝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요이상의 과잉 설치한 야간 조명이 유지관리비와 탄소 배출량부터 세금을 올리고 한편으로는 자연 별빛을 죽이고 있는 또 다른 공해이다. 과도한 가로등 빛으로 옷자라는 번두리의 작물,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가로수를 뽑아버린 버스중앙차선제 효율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약간 부족한 듯 덜 밝고, 어쩌면 좀 더 느린 듯 더디게 개발하는 정신도 높이 사야 한다. Slow is Fast. 느린 것이 빠른 것이어~!

# 두바이, 재개발, 마을만들기

정 석 | 도시연대 운영위원 /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 두바이 |

파티는 끝났다. 사막의 기적, 중동의 진주로 불렸던 두바이.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와 리더십으로 꿈같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두바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가장 비싼 호텔,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는 거대한 인공섬... 두바이의 꿈은 끝이 없고 달디 달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의 돈을 잘도 끌어 모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등 수많은 단체장들이 앞 다투어 두바이에 날아가 한 목소리로 외친 게 “두바이를 배우자, 두바이를 따라가자”였다. 바로 그 두바이가 지금 쫓짝 망할 위기에 처해있다. 2009년 11월 25일 두바이정부는 최대 국영기업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을 유예하겠다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부채규모는 59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조원에 이른다. 사막의 기적이 허망한 신기루로 드러났고, 두바이는 부러운 업천아에서 꼴통 문제아로 전략한 꼴이다. 이제 두바이의 교훈이 정반대로 바



뀌었다. 두바이를 따라가자, 두바이를 배우지에서 두바이의 실수를 따라하지 말자로. 두바이 모델의 핵심은 두 가지, 돈 끌어오기 투자유치와 개발붐이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은 한 방에 흑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성공전략이다.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사막의 작은 촌구석 두바이야, 이것 말고는 딱히 다른 비결이 없었겠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을 한껏 가진 우리 도시들의 두바이 따라 하기는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위기의 두바이에게는 참 안된 말이지만, 우리를 각성하게 해준 두바이에게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 두바이”

## | 재개발 |

2009년 한 해 내내 우리나라 곳곳에서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할퀴고 간 장본인이 바로 재개발이다. 새해 초 용산에서 벌어진 참사는 재개발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지를 일깨워준 가슴 아픈 교훈이었다. 개인도 국가도 모두 가난해서 딱히 다른 방도가 없던 과거 1960년대, 1970년대에야 재개발 아니고는 별 수 없으니 ‘가자’, 해도 할 말 없었지만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모두 세계 일류수준을 자랑하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이처럼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후진국 스타일의 재

## 디자인, 재개발, 마을·마을계획

박소현 | 도시연대 운영위원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개발을 계속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아프게 묻고 있다. 그런데도 재개발은 여전히 존재하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세상을 휩쓸고 있다. 언제부턴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개명한 재개발이 지금 이 시간 종로변 청진동 일대를 쓸어내고 있고, 뉴타운이란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어서는 서울의 오랜 시가지의 단독주택과 골목길 재래시장 할 것 없이 송두리 채 쓸어낸 뒤 아파트 숲으로 바꾸고 있다. 재개발은 성남시와 고양시의 구시가지들까지 죄다 삼켜버릴 기세로 번져가고 있다. 뉴타운은 더 이상 수도권에 머물지 않고 전국의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다. 재개발이 동네를 없애고 도시를 파괴하고 이 강산 이 국토를 죄다 쓸어버릴 날이 머지않은 것만 같다.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처럼 귀신같이 사람들을 홀리고 헤치는 재개발이 어느 해보다도 드세게 활개 쳤던 한해, 2009년은 재개발의 해였다.

## | 마을 만들기 |

지금부터 꼭 10년 전, 새천년을 눈앞에 두었던 1999년 말 어느 신문사 강당에서 '21세기의 삶과 주거환경 재구축'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 세기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21세기 우리네 삶과 주거환경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난, 결보기는 화려해도 속으론 골병을 앓고 있는

우리 삶의 병과, 개인공간에만 함몰되어 공유공간을 느끼지도 가꾸지도 못하는 우리들 마음의 병을 함께 치유하는 치료약이 곧 마을 만들기이니, 새천년 삶터 재구축 운동의 가장 적합한 대안인 마을 만들기를 들불 번지듯 우리 강산에 퍼트리자며 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난다. 실제로 2000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상 처음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어렵다는 중세분화를 실천에 옮겼으며, 용적률을 낮추는 다운조닝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다.

곧이어 거센 역풍이 밀려왔고 새천년의 첫 10년은 결국 퇴행의 10년을 면치 못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개발시대의 거센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가꾸면서 다양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갖고자 했던 새천년의 꿈은 허망한 꿈으로 끝난 셈이다.

그래도 다시 희망이 보인다. 마을 만들기의 싹들이 튼튼히 자라고 있고 또 새롭게 솟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진안, 안산에서 지난 10여년 뿌리내리고 자라온 마을 만들기가 자라고 있고, 서울에서도 재개발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마을 만들기 실험이 복촌을 넘어 서촌으로, 노을길로, 우이동으로, 서원마을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 희망은 딴 데 없다. 오직 마을 만들기뿐. 

## | 디자인 |

디자인 경쟁력, 디자인 올림픽, 디자인 수도, 디자인 본부, 디자인 심의, 디자인 거리, 디자인 빌리지, 디자인 교육.....우리 주변에서 '디자인'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도처에서 사용되는 때가 언제 또 있었을까? 소위 공공 디자인이란 이름으로 우리주변에 새로운 디자인 결과물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있다. 작게는 일반버스 전면에 걸린 "손을 씻자" 라는 배너의 새로운 글자체 모양에서부터 크게는 광화문 광장의 어리둥절한 오픈스페이스 구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공공디자인의 결과물이 우리 도시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가히 '디자인'을 2009 한국도시사회 대표 키워드의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게 된다. 한편, 이러한 '디자인' 관련으론 그럴듯한 언설이나, 매

끈한 'before-after' 사진으로 제시되는 결과물 증명보다,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공공디자인의 서비스 당위성을 시원하게 입증해주는 경험이 2009년에 나에게 는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하철 9호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쾌적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우선 시각적으로 흡족하다. 그리고 명쾌하게 작동하는 방향안내, 혼란 없이 연계되는 갈아타기 계획, 효율적인 전동차 운용 속도...장황한 설명이 없이도, "아! 좋은 교통 서비스, 좋은 디자인 서비스가 이런 거구나" 하고 자연스레 알게 해준다. 타면 눈이 즐겁고 또 빠르고 편리하고 편안해서 선택하게 되는 지하철 9호선이다. 우리 도시사회의 심각한 환경문제나 도시인의 건강문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결과적인 효과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동반된다. 2009년

한 해 우리의 도시를 무던히도 장식해 보  
고자 했던 단어, 디자인, 그 도시 공공디  
자인의 기여는 아마도 지하철 9호선처럼  
다가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 | 재개발 |

재개발은 그동안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기반  
을 지배해온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재개발의 독특한 양  
상에 대해 경원대 정석교수님은 우리의  
정신을 홀리는 ‘구미호’라 명명하기도  
했고, 성균관대 신중진교수님은 맹목적  
인 믿음으로 포장된 ‘신홍종교’라고 설  
명한 바 있다. 재개발은 소위 낙후되었  
다고 평가받는 열악한 지역을 깨끗하고

편리한 새 단지로 탈바꿈시키고 경제적  
인 이익이 창출한다는 원리 그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이익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처 따져  
보기도 전에 재개발을 하기만 하면 모두  
돈방석에 앉게 된다는 환상이 우리사회  
에 오래도록 작동하고 있다. 아주 오래  
된 동네를 살기 좋게 개선하는 방안이 오  
직 고층아파트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재  
개발뿐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다른 대  
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는,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조짐도 2009  
년에는 더 눈에 띄었다. 우선, 서울 서촌  
지역에서 종전에 수립되었던 재개발 계  
획이 철회되고, 지역의 문맥에 맞도록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개발의 큰 틀이 바뀌었다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재개발 구역이었던  
동선동 한옥밀집지역에서도 그리고 성  
북동의 한 저층 주거지역에서도 동네를  
다 쓸어내고 새로 높게 짓는 방식을 원  
치 않는다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  
었다. ‘획일’을 거부하는 너무나 반가운  
‘다름’인데, 아직은 극히 소수의 움직임  
에 불과하다. 재개발찬성과 재개발반대  
의 운동이 한 500 대 1 정도는 될까? ‘다  
름’의 반가운 사례였던 서촌에서조차  
재개발을 못하게 되었다고 화가 난 몇  
몇 주민분들이 지구단위계획 공청회의  
단상을 뒤엎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재개  
발은 여전히 강력한 ‘구미호’이고 ‘종교’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일까?

### | 마을, 마을계획 |

지난 2009년을 나는 조한혜정교수님  
의 ‘다시, 마을이다’ 책을 다시 읽으며  
시작 했었다. 2009년 봄학기 대학원 수  
업 community design의 부교재로 선택  
한 책이었고, 정말 우리 도시사회에서  
함께 추구해보고 싶은 비전이고 소망이  
었기에 새해 첫날을 맞으며 읽었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마을, 마을계획에 대  
한 특이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감사한  
기회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물  
리적인 환경과 연관이 되는 마을,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많은 부분 공공 영역보다  
는 사적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  
져 왔다. 시민단체가 기획하고 정착시킨

동네의 자투리 땅 녹지화, 한평공원, 놀  
이터조성, 벽화그리기, 담장허물기, 그  
린과킹, 등등은 마을계획의 대표적인 내  
용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갔다. 물리적인  
환경계획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아직 구  
체화 하지 않고 있지만, 유기농먹거리,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 대안학교, 동  
네신문, 주민라디오, 문화공동체, 다문  
화공동체 등 여러 사회운동이 사실상 마  
을운동, 마을계획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적 영역의 마을계획 행위를 좀  
더 공공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보려는 노력이 2009  
년에 있었다.

예로, 서울시에서 경관법의 경관협정  
제도를 운영하는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이 처음 시도되었다. 동시에 지구단위계  
획 제도를 이용하여 마을만들기를 현실  
화해보려는 시범사업도 있었다. 이 두  
사례는 이제 막 첫 단추를 낀 단계로서  
아쉬움이 많은 상태이고, 추후 경과와  
시사점을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마을  
계획에 대해 새로운 제도적 시도였다는  
점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혹은 언제까지라도, ‘구미호’  
이면서 ‘신홍종교’인 재개발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겠지만, 최소한 이에 대응  
하는 대안적 해법의 모색이 제도적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반갑다.  
그래서 2010년 새해에 ‘그래도, 다시, 또  
마을이다’라고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려  
한다. 



## 도시심리학

윤인숙 | 도시연대 이사 / N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연구실장

올해는 심리적으로 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늘 도시학교의 붕괴와 사교육열풍을 비판하면서도 남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이를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저는, 올해 작은 아이를 강원도 양양의 작은 학교로 산촌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학원에 안가서 행복해했고, 나는 주말을 맘대로 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 동안 가보고 싶던 좋은

곳을 두루 구경다녔고, 아이가 있는 양양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지리산둘레길과 제주올레길을 걸으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연의 풍광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 걷는 일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아이가 지내는 산촌에서는 마을의 정겨움을 흠뻑 느꼈습니다. 동네 한바퀴를 구경하면서 이 집에는 소가 몇 마리인데 언제 새끼를 낳았고, 저집 개 이름은 해피이고, 또 저 집에는 삼촌이 물레방아를 만들어놓았다는 아이의 설명을 들었지요.

마음이 도시를 떠나 있어서 그런지, 도시사회의 키워드를 골라내서 글을 쓰라는 청탁을 받아놓고는, “올해 뭐 특별한 게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시민과 도시’라는 잡지의 편집장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의 흐름에 둔감한 거 같아 잠시 움찔했습니다. 2009년 도시사회라... 녹색도

시? 자전거와 걷기열풍? (세종로)광장? 용산참사? 음... 다들 아는 이야기네요.

뭔가 좀 색다른 게 없을까,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 보니, 올해 출판의 키워드가 심리학이라는군요. ‘심리’라는 단어만 붙여도 책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저도 심리학 관련 책을 여러권 읽었지요. 이런 심리학책의 범 속에 ‘도시심리학’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는 도시공간에 스며있는 심리학적 요소를 기대하였으나, 도시인의 심층심리 분석이 초점입니다. 문자메시지, 폭탄주, 와인, 자살, 사주카페, 대리운전, 노래방, 기러기아빠 등의 도시현상을 통해 도시인의 맘속에 숨겨진 심리를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심리학 공부를 마치고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한 선배가 말하길, 한국 사람은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미국 사람은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정신분석학자가 미세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사회 도시인들은 ‘고독에서의 탈출’과 ‘혼자있고 싶음’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인의 이중적 모습은 스타벅스 풍경에 잘 나타납니다. 스타벅스에는 노트북이나 책을 들고 혼자 앉아있는 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느 날 오전, 친구를 만나러 스타벅스에 갔다가 홀로이 앉아 오

래도록 책을 읽고 있는 중년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집에 안 있고 카페에 나와 앉아 있을까? 아내와 아이들 등쌀에 시달려 혼자있고 싶어서 나왔나, 아님 기러기 아빠인가? 후자일 확률이 더 높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이지만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 머무름으로써 외로움을 덜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지요. 이렇게 카페는 만남의 장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독한 도시인의 거실기능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연대가 만드는 한평공원도 동네 거실의 기능을 하는 셈이겠지요.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하던 정자나무그늘이나 동네 골목길이 거센 도시화의 물결 속에 사라진 지 오래이고,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지금, 집밖에 나가면 누군가를 만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갈 수 있는 한평공원과 같은 공간은 더욱 소중해질 겁니다.

저지는 “너를 이해하고 나를 돌아봄으로써 도시인의 위로받고 싶은 고통과 우울감의 본질을 알아서..... 좀 더 나은 삶, 덜 썩썩한 삶, 살 만하다고 느끼는 빈도가 찾아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도시인의 심리에 대한 이해는 도시만들기에서 이제 필수적인 덕목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재인간화, 시청자, 공감능력

맹기돈 | 도시연대 간사



## | 재인간화 |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혹자는 도시사회의 끊임없는 변화를 성형수술 중독에 비유하기도 한다. 도시의 겉모습이 변하는 것은 인간화의 재정립과 연관이 있다.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 문명의 집적이 도시를 낳았다면 지금의 도시사회의 모습은 재인간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 끊임없는 재인간화 과정을 거치는 도시가 성형수술 중독에 걸린 듯 벗어날 수 없다. 현대의 도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간화의 개념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도시는 수술대 위로 올려진다. 공간은 끊임없이 지워지고 다시 무언가로 채워진다.

“현대의 조건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있다. 선택은 현대화 아니면 소멸뿐이다.”

-지그문트 바우만

운이 좋게도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야구부의 전성기는 나의 재학시절과 동일했다. 우승기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청룡기, 대통령배, 황금사자기 등 전국대회 4강에 빠짐없이 진출하였다. 야구부 응원을 증명하는 입장티켓만 있으면 출석처리를 해주었던 학교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리는 32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동대문운동장에 진출을 치기 시작했다. 모교의 전국대회 진출을 기뻐하며 찾아온 선배들이 주던 술을 몰래 마시기도 하고 신발을 거꾸로 들고 누가봐도 당연한 아웃을 셰이프라고 소리치기도 하며 대학입시라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해주었던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생기기 이전에 큰 인기를 얻었던, 고교야구의 붐과 함께 하며 많은 이들의 추억을 공유했던 동대문 야구장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이제는 전철 노선도에서조차 동대문운동장이라는 명칭은 지워졌다).

도시의 상징성에 대한 전략은 그 끝

이 없다.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면, 새로운 인간화의 흐름에 뒤처진다면, 장소에 깃들여 있는 다양한 삶의 흔적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내가 어릴 적 방학마다 영화를 보러 갔던 종로 뒤편의 극장들이나 소풍을 갔던 놀이공원도 지워졌으며 전에 살던 주택은 어느새 빌라가 들어서 있다. 나와 서울은 우리의 역사와 기억을 증언해줄 편리한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

## | 익명의 이웃 - 시청자 |

2009년 1월 20일 있었던 용산사태는 도시사회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그리고 그 합의<sup>1)</sup>에 이르기까지 1년 가까운 시일이 걸렸다. 나는 용산사태 ‘시청자’로서의 우리 모습이 이 도시사회의 시대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그와 관련되어 그들과 자신을 이분화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일이라 생각한다.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듯, 나와는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인 듯 무심하다. 같은 서울에 살고 있는 이들조차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지 못했다. 마음으로는 그럴지라도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주체적 감성을 의식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로 인해 생겨난 방향상실과 우울함을 부인한다.

또한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자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감각적 과부하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소 산만한 태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한다. TV에서 쏟아지는 버라이어티쇼에, 아이돌스타에 감각을 맡기거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며, 게임에 집중하거나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책을 읽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감각의 과부하를 예방한다. 어쩌면 이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을 부정하려는 절망적 몸짓일지도 모른다. 사회로부터 얻은 상처가 주는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진통제를 공급한다. 즉 ‘공포’와 ‘불안’이라는 감성을 다스리는 전략을 통해 사회적 삶을 연명한다.

이렇듯 도시사회는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체생산이 활발하게 진행된 듯 하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탈주체화’가 일반화되고 있다. 즉 고정된 특정 주체로 위치 지워지지 않는, ‘익명성’의 전략이 강요된다. 지금에 주체의 형상 속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그것의 본질적인 작용일 것이다. 그저 바라만 보는, 수동적인 익명의 시청자로 한정되는 그 주체 말이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로부터 무심하게 만드는, 바로 이 ‘익명화’의 전략이다.

### | 공감능력 |

어쩌면 우리 이미 억압적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주체로 예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구성원들간에 끊임없는 경쟁으로 연명되는 도시의 삶은 강한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동의를 표시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어느새 공범의 누명을 씌게 된다. 이러한 자극의 상황을 타계할 대안을 논하는 일은 언제나 어떤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도시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로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야 한다. 영등포 쪽방촌에 대한 한 연구를 보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외로움’에서 유대가 비롯된다. 이들의 공통된 정서인 ‘외로움’이 사회관계와 유대감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쪽방촌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 이유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쪽방촌 안에서는 외부 사람들의 불편하고 경계 어린 시선을 벗어날 수 있다. 영등포 쪽방촌의 주민들은 그들의 마을 안에서 ‘무관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같은 처지의 사람

들’끼리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김효진 2009 지금의 도시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유대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감능력의 확대이다.

우리 사회에서 도시사회가 가지는 문제는 개개의 구성원이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민수 2009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든 표상하고 있어야 한다. 엄밀한 태도에서,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신뢰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신의 신분, 계급, 취향을 인정받기 위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도시의 성형수술이, 보기 싫은 것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이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너무 익숙하던가, 아니면 관계가 없던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기억하려 노력해야 한다. 김민수



# 나의 2009년 도시생활 키워드

## 1년간의 서울 생활 속에서

차희영 | 도시연대 객원기자

나의 올해 도시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서울 생활이 아닐까 한다.

회사가 강남에 있어 일산 변두리 동네에 살고 있던 나는 직장을 따라 홀로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수도권외 신도시 같은 아파트 단지가 없는 곳을 찾다 알게 된 곳이 녹사평역 근처. 차는 물론 사람의 두 다리도 올라가기 꺼려하는 경사진 언덕 골목 한 구석에서 처음 시작한 서울 생활.

서울로 이사를 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좋았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노을이었다. 1시간이 훌쩍 넘는 출퇴근에 치일 때는 어두컴컴한 지하철 속에서 저녁을 맞이하기 바빠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없었나보다. 집에 도착하면 이미 해는 서쪽으로 한참 넘어가 어둑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퇴근 길 한남대교를 건널 때 서쪽 한강으로 서서히 잠기던 붉은 태양은 어찌나 마음을 설레게 하던지. 짙은 노을은 남산 하얏트 언덕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목 내내 먼발치 빌딩들 사이로 층층이 아름다운 빛깔을 품고 있었다.

매일 내려가는 언덕임에도, 날씨가 좋은 날은 매일 볼 수 있는 저녁노을임에도, 난 매일 그 노을을 보며 내려갈 때마다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같은 장소에서, 거의 매일.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은 'N타워' 라고 부르는 남산타워이다.

나의 서울 생활에서는 일상의 반경 어디에서나 남산타워를 볼 수 있었다.

퇴근길 피곤한 마음에 멍하니 시선을 놓고 싶을 때나, 운동을 마치고 개운한 마음으로 마을버스를 기다릴 때나, 집 앞 편



내게 매일 볼 커진 남산타워를 바라보는 일은 딱 그런 의식이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고 싶어서 매일 바라본 게 아니라, 매일 해가 지면 하루도 빠짐없이 불을 밝히는 남산타워를 보며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점을 찍고 싶었다. 지금은 이사를 해서 남산타워를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가끔 늦은 밤 일기를 쓰거나 읽던 책을 덮고 나면 남산타워가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광화문 광장.

덕수궁과 광화문 사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의 추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곳이다. 운동장보다 넓었던 왕복 16차선, 만남과 헤어짐의 소소한 기억들이 있는 곳. '눈 나리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들던 이문세 노래들... 그 때 광화문 사거리는 보행자를 배려하는 횡단보도도,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을 건너 형성되었던 조선시대 육조거리의 문화와 역사를 되살리려는 노력도 크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에게서는 혼잡함 속 뭔가 모를 여백을 느낄 수 있어 좋은 서울 도심 중 한 곳이었다. 그런 광화문 거리가, 2009년 8월 1일,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열리게 되었다.

광화문 광장은 올해 나의 일상을 이루는 장소 중에서 가장 많은 볼거리를

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 면이 불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바라볼 때 항상 내 시야를 채우던 남산타워의 불빛. 그 불빛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곤 했다.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반복되는 일상의 행동패턴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 일종의 개인적 리추엘의식이라고나 할까. 일상적인 행동에서 정서적 안정감이나 행복을 찾으려는 과정으로 매일 아침 커피를 한 잔 마신다던가, 주말에 산책을 간다던가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공하고 있다. 비몽사몽으로 출근하는 아침에 차벽을 보여주고, 공사벽을 보여주고, 스노보드 언덕을 보여주었다. 요즘엔 스케이트장 담장이 보인다. 날마다 다양한 조형물이 탄생하고 사라진다.

광화문 광장에 한 번 들어선 적이 있다. 맑은 낮에 이순신동상 뒤에서 재건 중인 광화문 쪽을 향하니 정면으로 시원하게 보이는 경복궁과 북악산에 가슴이 탁 트이고 기분이 좋았다. 이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좋았다.

문득 월드컵 때, 그리고 촛불을 든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열렸던 광화문 거리가 떠올랐다. 지금의 광화문 광장도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의 광장. 예전 거리의 추억 때문인지 변모된 광화문 거리는 내

게는 아직 어색하다.

직장은 여전히 강남이지만, 올해 겨울 1년간의 도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20대를 마감하는 2009년, 나의 도시생활은 처음으로 혼자 모 든 걸 해결해야 하는 생활 속에서 웃지 못할 일들도 참 많았고, 일상의 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 생활 속에서 특별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이미지가 몇 개 있었다. 앞으로 또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할 기회가 있을까 생각해 보며, 2010년에는 도시 속 일상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또 모두가 복된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대  
도시연대 객원기자 |  
코레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우측통행

지난 수십년 동안  
사람들 모두가 알고 지내던 공공질서의 규칙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갑자기...

합리성 등을 근거로 50년이 넘도록 알고 지내던  
“좌측통행”의 물이 사라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지내 왔던  
“좌측통행”은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우측통행, 좌측통행이라고 표시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배려가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급하게 우측보행으로 바꾸고 시행이 되어야만 했을까?

바뀐지 10여 개월이 다되어가지만,  
갑자기 바뀌어버린 익숙하지 않는 보행규칙은 여전히 어색하기만 하다.

우리는 50년 뒤에도 우측보행을 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의 도시 풍경. 그 어느 곳의 풍경이던지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오묘하다. 그 비밀을 파헤칠 수는 없을까? 어떤 공식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상수와 변수는 어떤 것들인지? 이 연재의 제목을 '풍경 공식'이라 잡은 이유이다. 정교한 공식을 세울 순 없지만,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 도시 풍경의 오묘한 원리를 찾아내는 작업을.

# 공정의 풍경 일기

공원과 공장의 생경한 만남  
먼저 아래의 풍경을 감상하자. 어떤 곳일까?



더 이상 연기가 나지 않는 굴뚝과 기계소리를 내지 않는 공장 건물들

위의 풍경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미 갖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공장'이라고 추측하지 않을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추측은 빗나가기 쉬운 법. 독일 뒤스부르크 Duisburg라는 도시의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Duisburg-Nord Landscape Park)'의 풍경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유도 공원 디자인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저 위의 사진에는 공장의 면모만이 강조된 것이지만, 이곳에는 '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도 물론 있다. 공원 한쪽에는 미끄럼도 있고 벽에는 암벽타기도 있다. 누가 심지 않았어도 스스로 자리를 잡아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거친 분위기를 부드럽게 완화시키고 있다. 가장자리에는 수풀이 무성한 수변공간도 있다. 이번 겨울에 찍은 사진들이라 비록 쓸렁하기는 하나 이곳이 일반적인 공원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 곳을 흐르는 하천 가에는 수풀이 수북하다.

공장과 공원이 겹쳐진 이곳의 풍경에 대해 어떤 분은 '에게! 저게 무슨 공원이야?' 그럴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분은 '어머나! 저런 곳도 공원이 될 수 있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부정과 긍정.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위의 풍경이 우리의 머리에 각인된 공원과 사뭇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공원에 웬 차디찬 철제 구조물들이란 말인가? 저 콘크리트 굴뚝은 또 무엇이고? 공원과 공장은 같은 '공'으로 시작하지만 이 둘은 어떤 축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곳에서는 공원과 공장을 같은 축에 두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생경한 풍경.

이러한 낯선 만남을 이해하기 위해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의 이력을 살펴보자. 이곳은 한 때 잘나가던 철광 공장이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

하며 회로애락을 나누었고 가족의 생계와 꿈을 이끄는 근거지였다. 그러나 어떠한 부귀영화도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이라, 이곳도 1970년대 이후 석탄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마침내 1985년 공장의 기능은 전혀 필요 없어지게 된다.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장 측에서는 뒤스부르크 시에 이곳을 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시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는 일. 결국 뒤스부르크시가 속한 주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아서 샀다. 그런데 거기서 끝은 아니었다. 이 구조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없애고 공원을 지으려니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다. 주민들도 원했다. 자신들이 아침마다 출근해서 동료들과 어울려 일하던 곳. 우리 가족의 터전이 되어 주던 곳,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다니던 직장. 오랜 동안 우리 동네의 랜드마크로 서 있던 굴뚝과 용광로. 얼마나 많은 애환이 저 곳에 숨겨져 있었던가. 저 공장은 그냥 공장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바람은 타당했다.

공장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지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 진 후, 여러 설계가들이 참여하는 설계 경기가 이루어졌고 이 경기에서 당선된 설계가 피터 라츠Peter Latz가 1991년부터 공원이 개장된 1994년까지 전체 설계 과정을 이끌었다. 그는 기존 시설은 가능한 한 유지하고, 식물들은 자연적으로 크도록 하면 하는 주와 주민들의 요구에 준해 공장에 공원이라는 또 다른 풍경을 곁쳤다. 그래서 깊이가 170m 되는 가스 저장실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 홀이 되었고, 또 다른 저장탱크에는 물을 채워 스쿠버 다이빙 체험장으로 쓰고 있다. 주변에 바다가 없어 아쉬움을 갖던 스쿠버 дай버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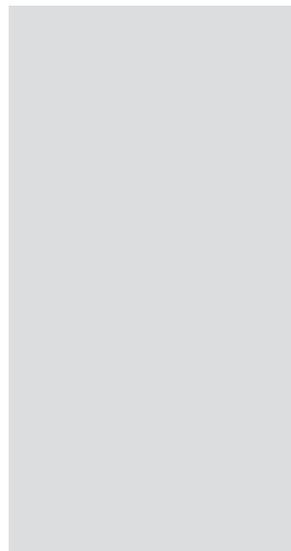
다. 또 철강이 운송되던 기차길은 자전거길이 되고 기차는 조형물이 되어 남겨졌다. 또 발전소 건물은 분위기 좋은 커피숍이 되었다.

이 노드 공원이 위치한 루르Ruhr 지역에는 '이런 곳'이 여럿 있다. 아니 루르 지역 자체가 공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꿈꾸는 '이런 곳'이다. 뒤스부르크시와 에센시를 포함해서 루르강을 따라 있는 작은 도시들은 2차 대전 이후 독일 경제 부흥 시대의 주역들이었다. 아니 유럽전역의 성장엔진이었다. 1840년대 석탄채굴이 시작되면서 세계최대, 최고의 중화학공업지역으로 성장해 1900년대에는 대규모 철강업이 입지하고 금속, 기계, 전기기구 산업이 활성화되었다. 루르강이 라인강의 지류이니 그야말로 '라인강의 기적'이 이곳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곳을 찾아들었다. 산업의 역군들. 그 안에는 우리네의 광부들과 간호사도 있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 속에서, 루르의 많은 공장들은 그리고 그 공장을 품고 있던 도시들은 변해야 했고 변했다. 노드공원처럼 공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곳도 있고, 독일 최대의 탄광지였던 출페라인Zollverein은 존재의 위기 앞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근대 석탄, 철강산업의 역사성과 상징성, 바우하우스 양식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의 가치가 인정받은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가까운 곳에 있는 또 다른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쾰른 성당에 빗대어 '노동자들의 성당'이라고 칭한다. 출페라인은 그 역할



이전 컨퍼런스 홀이 된 거대한 가스 저장소 앞의 안내문



저 구조물 본래의 기능은 잃었지만 루르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디자인 박물관과 디자인센터를 비롯하여 디자인 문화 기업을 입지시켜 산업 디자인의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무조건 변화만을 하고 있지는 않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과 변해야 할 것들이 영리하게 구분되었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장소들에 대한 자존심, 자신들의 눈에 익은 풍경, 지역의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적 조건이 되는 일자리, 그러한 것들은 유지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변화를 추구했다. 일례로 잘 나갈 때는 8,000명이나 일했던 이곳이 문을 닫을 당시에는 오직 1,200명만이 남았었는데, 현재에도 그 1,200명의 일자리만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붉은 벽돌 건물과 탄광시설 등은 가능한 한 그대로 두어 산업화 시대의 옛 모습을 남기려 하고 있다.



풍경 해석이라는 함수에서 'X'는 양수이다  
 전문가들은, 아니 굳이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풍경에 개입을 해야 할 경우 현재의 풍경을 읽고 분석한다.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본다. 또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읽으려고 한다. 심리적 접근인 것이다. 이러저러하게 접근하여 진단을 하고 나선 풍경을 '해석' 한다. 그런데 경관의 '풍경의 해석'이라는 함수에서 'X' 값은 보통 음수로 설정되기 쉽다. 음수인 X, 해결책을 내주어야 하는 문제점인 것이다. 이제까지의 관행적인 접근에서 뒤스부르크노드 파크나 출페라인의 구조물과 건축물의 X는 음수로 낙인찍히기 쉽다. 먼저 날리고 차갑고 삭막한 철제 구조물과 콘크리트 건축물이 제



출페라인, 탄광안에 있던 화장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출페라인, 석탄을 나르던 시설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교육적 자료가 된다.

기능까지 못하니 말이다.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 혹은 새파란 잔디밭과 멋진 조형물이 있는 공원을 그 자리에 놓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풍경에서 양수로 읽혔다. 사라져야 하는 음수의 X가 아닌 어떤 가능성을 지닌 양수. 양수의 가능성은 다양하게 탐지된다. 기존의 시설을 재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성이라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한 시대의 문화유산을 간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아이들한테는 역사적 교육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거기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히 '예쁘다'거나 '편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추악성까지도 포함한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으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대상에 있다. 그래서 이젠 쓸모가 없게 녹슨 철제 구조물과 굴뚝에서, 그리고 벽돌 건물에서도 우린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감지해낼 수 있다. 철과 콘크리트라는 강인한 재료의 날 것 그대로가 주는 스산함은 번쩍거리는 도시에서는 잃었던 어떤 감각을 일깨워줄 것이고, 묻혀있던 원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의 용광로, 더 이상 뜨겁지는 않다.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의 용광로 위에서 바라보는 루르 지방. 과거의 이곳은 어떠했을까?



하얀 수피의 자작나무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철타이프와 묘하게 어울린다.

시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때의 부귀영화를 뒤로 한 굳건한 모습 속에서의 감지되는 비애미는 지금 여기의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사시사철 저 철타이프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또 어떠한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녹슨 철타이프와 생생히 살아있는 자작나무 흰색 수피와의 만남 그리고 가지각색의 꽃들. 한때는 뜨겁지만 지금은 차디차게 남아있는 저 용광로의 철타이프 계단을 오르는 것은 어렵지만 저 위에서 과거와 현재의 생의 여러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의 고요 또한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쿵쿵쿵 철타이프 찌그덕 활활활’ 그런 소리를 내던 곳이 갖는 지금의 고요, 역사적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공원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잃은 감수성을 다시금 짚어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뒤스부르크 노드공원은 참으로 공원답다. 공장과 공원의 만남이 낯설지 않은 지점이다.

혹시 우리는 풍경의 X를 처음부터 음수로 설정한 나머지 많은 것들을 잊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도시에도 많은 공장들이 있었지만 왜 우리는 노드공원 같은, 출제라인 같은 곳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까? 청계천 위를 날던 콘크리트 구조물은 꼭 사라져야만 했을까? 남산의 그 말 많던 건축물들을 살리지는 말에는 왜 아직도 말이 많은가? 풍경을 해석하는 함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부정의 X가 아닌 긍정의 X를 찾는 함수. 

### 글을 마치면서 제공하는 tip

뒤스부르크 도시와 에센시를 포함해서 루르 지역이 2010년 유럽의 문화 수도 European Capitals of Culture로 선정되었다. 유럽 문화수도는 1985년부터 유럽연합의 주도하여 시작되었고 첫 해는 아테네가 그 주인공이었다. 88년에는 서베를린, 90년에는 글래스고, 99년에는 바이마르 2010년에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53개의 도시가 포함된 루르지방. 그래서 루르 지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단다. 중심의 에센시는 총괄을 하지만 나머지 시들은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프로그램을 주관한단다. 그러니 일 년 내내 색다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어떤 하루는 탄광이 있던 모든 곳에 노란 큰 풍선을 매달아 옛날의 기억을 시각화한단다. 시적이다. 그리고 또 루르지방을 통과하는 아우토반을 막고 행사를 한단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빵장수는 빵을 팔고, 도심의 가로도 아닌 그 긴 아우토만 자체가 놀이와 문화의 장이 되는 것이다. 무제한적 속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무제한적 놀이.

혹여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 이곳에 들리시라. 그래서 그 산업의 장에서 어떤 풍경이 양수의 X로 작용했는지 확인하시고 즐기시길.

도시연대 Hot Issue는 새롭게 시작되는 꼭지입니다.  
도시연대 회원, 사무국, 이사회, 운영위원회, 센터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Hot한 Issue를 인터뷰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도시연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회원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꼭지가 되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디자인센터 신임 센터장

기초 12 ~ 12 박사 인터뷰

지난 12월 28일, 합정동 모처에서 '커뮤니티디자인을 하다' 책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CDCCDC: community design center의 생생한 현장활동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책이다. 또 이날 자리에서 새로운 센터장을 선출했다. 신임 센터장인 김연금박사를 만나 이번에 출판한 책과 센터장으로서 CDC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얼마전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라는 책을 출판했다. 어떻게 책을 출판하게 되었나?

커뮤니티디자인센터에 모여 함께 일을 한지도 벌써 10년이 가까워졌다. 그동안 우리 활동을 가지고 책 한번 내지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실현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출판하게 됐다. 우리 센터에서 책을 내지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지 않았나 한다. 처음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만들었을 때 커뮤니티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공부했었다. 개념정리에서 출발, 한평공원, 놀이터 리모델링 등 많은 사업들을 실제로 하면서 커뮤니티디자인에 대해 우리 이야기를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 출판된 커뮤니티디자인과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외국번역서다. 우리의 이야기를 출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동안의 활동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외부에 알리는 작업이기도 했다. 실제 현장에서 커뮤니티디자인을 적용시킨 사례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 만큼 우리의 노후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 책 소개를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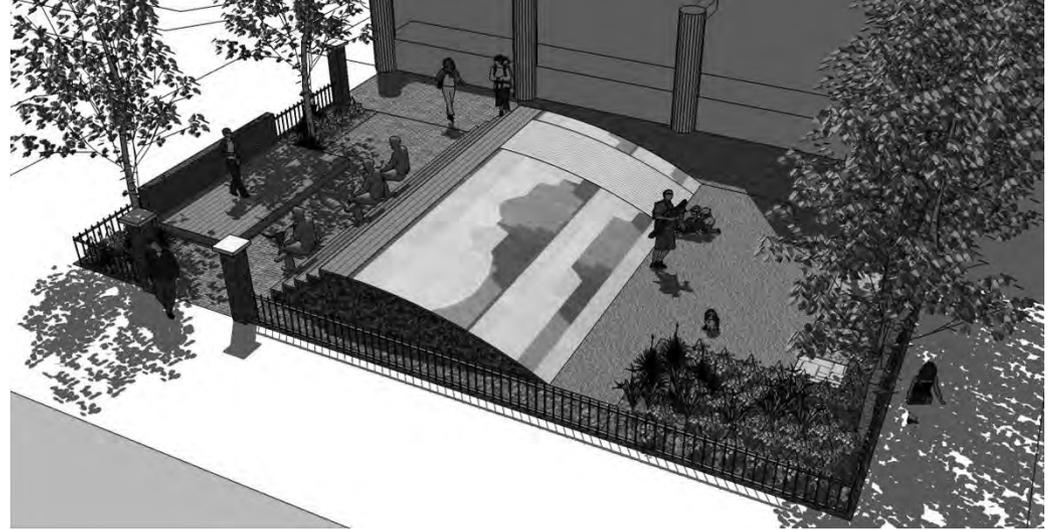
크게는 커뮤니티디자인에 대한 정의와 방법론이 주된 내용이다. 커뮤니티디자인과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커뮤니티디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이 책에 나온 커뮤니티디자인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도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참

고문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이 공부하고 현실에 적용시켜보면서 이전의 개념과 책들에 근거해서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많은 활동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체화되었다. 또 책속에서만 있었던 정 의들이 정말로 현실에서 적용하는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느낀 점들이 녹아있다. 한국 사회에서 커뮤니티디자인이라고 불리우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어 외국의 이론서와 비교해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커뮤니티디자인의 정의부분을 지나면 방법론이 나온다. 이 방법론에는 단순히 참여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지 않다. 커뮤니티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자세, 동네와 어떻게 함께 해야하는지, 참여프로그램을 한다면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지의 내용이 함께 녹아있다.

●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하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쓴 글이니까 디자이너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또 관련 학과 학생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커뮤니티디자인을 한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커뮤니티디자인에 처음 뛰어들어든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경우 우리의 커뮤니티디자인을 가지고 그게 무슨 커뮤니티디자인이나 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커뮤니티디자인을 하려면 무엇도 해야되고, 이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되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다 안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그러나 커뮤니티디자인을 몇 번 해본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경험들을 묻고 함께 고민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커뮤니티디자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 디자이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우리의 장점은 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크던 작던 많은 경험들 속에서 사례들을 읽어다가 그 이야기를 쓴 책이니 그런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학생들이 읽었으면 하는 것은 요즘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을 보면 '어떻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하나' 라는 것은 많이 가르치지만 전문가의 윤리·의무·역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너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드로잉 기술, 컴퓨터기술 뭐 그런 것들은 많이 가르치지만 전문가가 사회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는지를 봤으면 좋겠다.

나도 생업에서는 조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난 조정일이 참 좋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행복하지 않다.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 이외에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람들? 그런데 그건 좀 자신이 없다. 지역에 근거하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다. 만약 이 책 2탄이 나온다면 1탄은 우리의 활동을 가지고 풀어나갔다면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내용으로 그분들의 노하우를 정리해서 함께 책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커뮤니티디자인센터의 역할일 것 같기도 하고... 지역의 훌륭한 사례들을 언어화하는 작업도 의미있어 보인다.

● 이제 CDC 이야기 좀 해 보자. 얼마 전 3대 센터장이 되었는데 축하드린다. 축하할만한 일인가?

글쎄... 생각을 잘 안해봤네... 좋은 건지 나쁜건지 부담인지 기회인지...

● CDC가 지난 10년동안 참 잘해왔다. 난 개인적으로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CDC를 통해서 본다. 각자가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들은 상근자 중심의 일반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 많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1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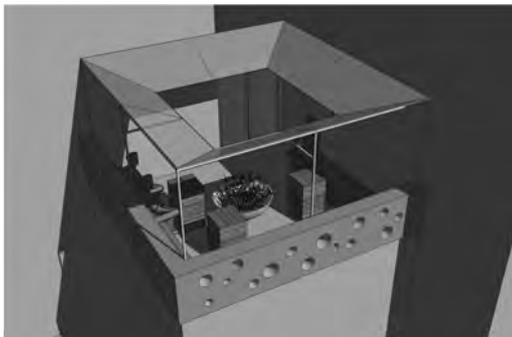
동아리 성격이 좀 강하다. 그런 동아리 성격이 CDC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어느 누구 강요에 의해 모인 사람도 없고, 또 각자가 본인의 생업이 있지 CDC를 통해 돈을 벌겠다, 경력을 쌓겠다, 명예를 얻겠다, 뭐 그런 식의 욕심은 없다. 이해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누구는 점조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유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동안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 단점일 수도 있다. 흔히 말할 수 있는 조직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모두 커뮤니티디자인에 대한 관심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공부하고, 또 그 일을 실제로 해보고... 그런 식의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조직을 키워야겠다, 뭐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CDC 조직개편이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논의만 있었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게 한계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은 많고 고민은 많아도 그것을 총대매고 해 내기가 쉽지 않다. 생업을 하면서 커뮤니티디자인에 대한 일들을 하기도 바쁘는데 조직개편까지 생각하고 해 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 이해관계라는 것이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럴겠지만 자신의 활동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CDC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관계가 있겠다. 사실 저사람은 왜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지난번까지 홍승모씨랑 김성주씨랑 3년 동안 센



터장 역할을 참 열심히 잘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을 봐도 '홍승모는 왜 나올까? 회사대표면 할 일이 너무 많을 텐데' 그런 생각 한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까놓고 이야기 해본 적은 없지만. 김성주박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알 수 없는 책임감? CDC라는 조직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서 민망해 하기도 하고...

- CDC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말도 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고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온다고 해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확장하고 외부사람들을 영입하려는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진 않은 것 같다. 앞에서 말했듯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것도 다들 바쁘다보니 잘 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신입 멤버들에게는 적응하는 기회를 잘 주지 못한 것 같다.

또 새로운 사람들은 함께 할 의향은 있는데 구경만 하다가 가기도 하고... 우리끼리 너무 친하니까 끼어들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활동이 천천히 진행되는데 급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급하게 안나오기도 한다. 좀 천천히 시간을 갖고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다. 권한씨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신문보고 찾아와서는 회의 때 멀뚱멀뚱 부끄럽있게 앉아있더니 지금은 개가 많은 일들을 해 내지 않나.

- 그래서 권한씨 한명 아닌가?

뭐...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게 그리 친절한 조직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늘 열려있다. 왔다가 간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갔다가 와도 잘 받아주고.. 커뮤니티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우리는 회의의 한 번 해도 굉장히 민주적인 많은 토론을 거친다. 누구의 의견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의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생각을 키워나간다.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누구라도 찾아오길 바란다.

- 대대적으로 한번 모집할 생각은 없나? 아직 미션이 없어서...

- **한평공원이랑, 놀이터 사업을 한 것이 CDC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  
당연하다. 책으로만 봤던 주민참여나 커뮤니티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거나 자신있게 이야기하거나 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다음에 그 과정? 그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 전에는 모여서 공부만하고 하다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주민도 만나고 하면서 스스로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CDC 사람들이 CDC 회의를 좋아한다. 이야기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회의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배웠다. 소통하는 방법.

- **순천YMCA와 함께 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을 도시연대 사무국과 함께 했다. 사무국과 함께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  
커뮤니티디자인센터도, 사무국도 도시연대의 한 일원으로 같은 길을 바라보고 서로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일한 것 같다.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나 커뮤니티디자인을 마을만들기의 큰 틀에서 바라보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의 역할을 사무국에서 잘 해줬다.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장기를 가지고 사무국의 일들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우리가 상시조직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사무국에서 해주기도 하고... 그동안 잘 해왔던 것 같다.  
이쉬운 부분은 사무국 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로 만나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국 개인 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 개인으로 만나는 것이 더 많은 점이다. 아, 불만 하나 생각났다. 사무국에서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CDC와 함께 하는 일들은 한평공원, 놀이터 정도로 너무 지협적이지 않나 한다. 사무국은 커뮤니티디자인과 관련된 일들을 CDC 이외의 조직과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니까... 다양한 활동들, 그 활동들 중 CDC가 잘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 **사무국도 CDC와 함께 일을 하면 좋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일 하면서 정말 CDC가 실력도 있고 생각이 깨어있구나 하는 점을 많이 느낀다. 그런데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CDC가 아주 빨리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실행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선뜻 CDC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힘이 든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동안 주어진 미션은 잘 수행해 내지 않았다.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뭐... 경관협정사업과 같은 것? 물론 사업의 성격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디자인과 관련된, 물리적 공간에서 사회성을 이끌어내는 더 다양한 일을 많이 해보고 싶다. 사무국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사무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 **정보가 왜 없을까?**  
최부장이 얘기를 안해줘서...
- **공식적인 자리,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어떤 이슈나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상황이나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또 CDC의 나아갈 방향과 같은 것도 사무국과 함께 이야기한다면 더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다.

- **센터장이 지적한 대로 CDC와 사무국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이야기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올 해 계획을 말해달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한평공원과 놀이터 사업과 같은 것은 당연히 계속 진행할 것이고... 올해는 한평공원 디자인 학교를 운영해 볼 생각이다. 아직 내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몇몇 사람들하고만 이야기 해 봤지만... 도시공간에 대한 포럼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이제 막 숨가쁘게 책도 나오고 디자인아카데미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모여서 함께 이야기 해 봐야 할 것 같다. 좀 느린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 조직의 장점이니깐... 한번 이야기 해 보고 사무국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겠다.

# 복거, <sup>卜居</sup> 어디에 살 것인가

| 방이동 백제고분군 일대를 거닐다 |

사람이 살만한 곳을 고를 때는 첫째로 지리<sup>地理</sup>가 좋아야 하고, 다음 그곳에서 얻을 경제적 이익, 즉 생리<sup>生理</sup>가 있어야 하며, 다음 그 고장의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지리는 비록 좋아도 그곳에서 생산되는 이익이 모자란다면 오래 살 곳이 못 되고, 생산되는 이익이 비록 좋을 지라도 지리가 좋지 않으면 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지리도 좋고 생산되는 이익이 풍부할지라도 그 지방의 인심이 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소풍할 만한 산천이 없으면 정서를 화창하게 하지 못한다.

- 『택지리』 복거총론<sup>卜居總論</sup> 중에서  
신정일, 「다시 쓰는 택리지 4 - 복거총론」, 24~25쪽에서 재인용

얼마 전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잔이 오가고 시끌시끌한 소음 속에서 마주앉은 직장상사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무어냐 물으시는데, 고작 대답이라고 한 것이 어처구니 없게도 “글쎄요, ‘육아’와 ‘재테크’ 아닐까요.”였다. (나의 대답에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 얼마 전 무릎팍도사에 출연하여 인기검색어 순위에도 올랐던 - 시골의사 박경철의 책을 읽어보라고 충고해 주셨다.)

간만에 마신 맥주 한잔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잠재의식 속에 “육아”와 “재테크”란 것이 꽤 부담스런 핫 이슈로 자리 잡게 된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여하튼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것이 요즘 내 머리 속의 한 부분을 어지간히 꿰차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흰 눈 쌓인 고분군 |



방이동 백제고분군 전경 |





높다란 언덕배기에 자리한 백제고분군 |

여담이지만, 그것을 나의 신분의 변화에 기입마와 결부시켜 보자면 이렇다. 얼마 전 뉴스였는지 라디오였는지, 신생아 1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21억이라는 기사를 본 적 혹은 들은 적 있다. 그 수치가 21억이었는데 12억이었는데도 사실 확실치 않다. 다만, 아기 하나가 태어남으로 해서 의복, 교육, 장난감, 의료, 기타 등등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분야에서 육아와 관련된 각종 경제활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근 딸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 무시무시한 육아의 세계를 한 끄트머리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일례로 한동안 나는 매일매일 돌잔치를 하는 생생한 꿈에 시달려야 했다.

실사구시를 구현한 조선후기의 실학자이자, 당쟁으로 유배되어 이후 평생을 우리나라 각지를 답사하며 교통, 지리, 문화, 인물, 특산물 등을 정리한 인문지리서인 『택리지(澤里志·八域志)』를 저술한 이종환은 “사람이 살만한 곳의 조건”으로서 지리, 생리, 인심, 산수의 네 가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서로 조화되고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사람이 오래 살 곳이 되는 것이다.

방이동 백제고분군을 처음 찾은 것은 사실 복거(卜居), 살 곳을 점친다는 뜻인데,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올 여름쯤 이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이 복거를 논할 때 가장 우선이라 할 만한 것, “가까운 곳에 소풍할 만한 산천”까지는 우리 욕심이고, 가까운 곳에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널찍한 공원이라도 있어야겠다는 희망 때문에 송파, 강동 일대 제법 널찍한 공원 주변을 “정서도 화창하게 할” 양으로 검사점사 돌

아다닌 것이다. 아직은 우리 가족의 먼 훗날 소망처럼 낮은 산자락에 다정하게 기대 단독주택에 살 여유가 없으니, 썩 대신 닭이랄까, 공원 주변이라도 기웃기웃한 것이었고, 다행히 송파와 강동 주변은 지금 살고 있는 백제초기적석총을 비롯하여 방이동 백제고분군, 올림픽공원, 오금근린공원, 허브천문공원, 길동생태공원 등 큰 공원들이 제법 자리잡고 있었다.

한동안 내린 눈으로 백제고분군의 낮고 밋밋한 봉분에는 눈이 한참이나 쌓여있었다. 여러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정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규모 고분군은 도시에서 보기드문 나무가 있고 산책로가 있어 뽀뽀한 도시의 삶터에 숨통을 틔어주는, 그래서 오픈스페이스라 불리는 한낱 공원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어쩌면 과거의 무덤가였던 이러한 곳들은 -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백제초기적석총 또한 - 애당초 이종환이 말한 양택(陽宅)으로서, 복거의 조건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먼저 쌓인 눈이 채 녹기도 전에 겹겹이 쌓인 눈발, 인적도 드물고, 한갓지고 조용한 그곳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 않게 드나들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 큰 숨이 내쉬어지고, 순백 위에 그려진 겨울나무의 끝은 그림자에 흐뭇해하면서, 가지 끝에 매달린 겨울새의 낮은 재잘거림에 귀 기울이거나 누군가 밟고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마음 속 깊이 바래볼 때면, 오늘날의 이 적적한 고분군도 현대적인 복거의 의미에서는 산천을 대신할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백제고분군  
내부 풍경

막상 훗날의 이사를 위해 휴일을 만나질을 비워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보니, 오늘날 우리의 복거는 그 옛날 이중환이 말하는 복거총론 - 지리, 생리, 인심, 산수 - 과는 거의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일면이 얼마간 있는 것도 같다. 옛 실학자의 이론에 누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리<sub>地理</sub>는 교통, 생리<sub>生理</sub>는 주택의 투자가치, 인심<sub>人心</sub>은 확실히 변하였고, 산수는 곧 공원이나 조망, 이 중에서 고려대상이 아닌 인심<sub>人心</sub>을 대신할 만 것으로는 나를 괜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교육<sub>育</sub>아...

오늘 이 도시의 복거총론을 운운하면서 웬지 이 쉽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나마 우리 가족의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복거의 조건을 찾던 중에 우연히 방문하게 된 방이동 백제고분군, 그 언덕 위에서 보았던 삶터로

서의 서울풍경이 이중환이 말한 지리, 생리, 인심, 산수의 조건으로 논하기에 다소 역부족으로 보였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살고 싶은 곳, 내 마음을 다하여 오래도록 살아보고 싶은 곳, 평생을 두고 나의 마지막까지 있고 싶은 곳, 그 삶터로서의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한겨울 고분군보다 더 적막한 서울풍경 또한 유난히 곳은 날씨 탓만도 아닌 것이다.

이 산저 산, 때론 도시의 이곳저곳을 세상 모르고 돌아다니던 시절을 뒤로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먹고 사는 일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까지 포함하여이 그 전보다는 좀 더 진지한 일이 되어버린 지금, 내게 이 도시는 단순히 걷고, 즐기고, 느끼는 공간에서 얼마간은 사는 공간으로 변한 것도 같다. 주로 걷는 일보다는 차를 타는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명소보다는 수시로 유모차를 끌고 나와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지고, 재래시장의 분주함에 셔터를 누르는 대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버렸으니 말이다.

어쨌든 백제고분군 위에서 바라 본 서울풍경에는 비록 착잡한 심정이 얼마쯤은 담겨 있었지만, 이 도시의 어딘가에는 객관적인 복거의 조건 외에도 나의 마음, 또는 누군가의 마음을 빼앗을만한 소소한 즐거움과 만족감이 분명 있으리란 기대 정말 맛있는 치킨집이 집 근처에 있다든가... 등등까지 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서울에 살고 있는가 말이다. 분명 서울은 이 나라 어느 곳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선택된 복거의 최전선, 아니 최종심인 것이다. **산수**



# 그 날처럼 그리움처럼



빙판 위에 놓인 물고기처럼  
곤궁한 겨울밤에 맞이한 성탄

밤하늘별을 쫓던 박사들처럼  
형형색색 조명 따라 나선 밤거리

불현듯, 작고 낮은 목소리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얀 노래



선물을 기다려 온 아이들처럼  
사람마다 얼굴을 밝히는 웃음

신산한 삶의 구비 속-처럼  
눈부심에 밀려난 뒷골목에도

그날의 그것은 그리움처럼  
포석 위로 하얗게 쌓여만 간다.



사람의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만납니다

한화손해보험

한화

‘참된 삶’을 고민하는 힘찬 연어

# 한수경 회원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한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몰려든다. 이번호 회원탐방의 주인공인 한수경 회원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경북 상주에서 서울로 왔다. 20여년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꿈꾸던 건축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시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 그래서 서울의 건축공학과에 진학을 하였다. 그렇게 그녀의 대도시 생활은 시작되었다.

서울로 상경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향을 잃어버린다. 높은 건물과 편중된 일자리, 수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앞에서 자신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갈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생활은 학창시절을 했던 20여년간의 기억을 지워버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서울에 정착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잃어간다. 서울은 매혹의 도시다. 그러나 한수경 회원은 언젠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말한다. 자신의 고향인 상주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것이 공부를 연장하여 연구를 통한 방법이든 지역 시민활동을 통한 방법이든 상주와 같은 중소도시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한수경 회원이 성장한 상주는 자전거로 유명한 도시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거 박물관이 있는 곳이며 매년 9월 자전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1인당 자전거 보유대수가 0.8에 이르는 자전거 천국이다. 역사적으로 경상도의 수도역할을 해왔던 경주와 상주는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였다. 1910년부터 행정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 자전거 보급을 유도하였던 것이 지금의 자전거 도시 상주를 만든 시초이다. 상주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상주 어디를 가든 반듯반듯하게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다. 곳곳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만큼 각종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한수경 회원도 중학교 졸업선물로 받은 것이 자전거였다

고 한다. 그리고 다섯 명인 식구의 수만큼 다섯 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한수경 회원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유별난 것도 수궁이 간다. 그래서 건축학과 졸업 설계도 상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도로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건축학과 졸업설계가 특정 건물인 것에 비해 자전거 도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을 계획해서 도시설계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학업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관두기도 한다. 대부분 더 나은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한수경 회원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건원이라는 설계사무소를 다니면서 도시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오히려 바쁜 직장생활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한 갈등을 한층 증가시켰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

는 방향이 뚜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건축을 공부하고 설계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디자인보다는 '사람들이 사는 진짜 삶'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하고 싶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건축 사무소를 관두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지금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을 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도시연대와 인연을 맺게 된 이유도 '사람들이 사는 진짜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며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 즈음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공간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싶었고 현재 그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찾던 중 도시연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평공원, 자전거 거리 만들기 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관심이 있는 일이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우선 움직인다는 한수경 회원이 회원가입을 곧바로 했던 것을 보면 다행히 도시연대의 활동이 마음에 들었었나보다.

한수경 회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참 똑 부러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부터 꿈꿔온 건축공부를 위해 서울로 온 것부터 자신이 하고자한 일을 위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관두고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기까지의 이야기나 도시연대와의 인연을 맺게 된 사연까지, 무엇 하나 타인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 없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리있게 구성되어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도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은 감히 철학이라는 것을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겸손해 한다. 자신은 아직 어리고,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은 시점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미래가 무척 궁금해진다. 말로써 무언가를 밝히는 것 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수경 회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천하는 지역 지식인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다. 언젠가 그녀가 이루고자 하는 멋진 꿈을 도시연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조현세의 200자 세상읽기

33.	천	원	짜	리	장	갑														
모	임	에	서	함	께	모	여	문	상	을	가	면	서	전						
철	안	에	서	파	는	물	건	을	살	까	말	까	서	로						
들	봤	다	.	체	면	차	리	는	것	은	아	닐	지	라	도					
주	춤	한	것	이	오	지	랴	넓	은	분	이	선	뜻							
5	개	를	사	더	니	일	행	에	게	두	루	나	누	어						
주	었	다	.	천	원	짜	리	중	국	제	목	이	긴	겨						
울	장	갑	이	다	.	집	에	와	서	오	천	원	짜	리						
라	고	해	도	민	어	준	다	.	따	뜻	해	보	이	고	일					
어	버	려	도	그	만	인	그	장	갑	은	두	해	겨	울						
을	넘	기	고	있	다	.														

- 천 원짜리 라고 무시하지 말자.  
그런데 그 다음해 부산-남포동을 걷는데 수입상이 망했다면서 그런 장갑을 500원에 팔고 있어 두개를 더 사왔다.

34.	전	철	안	의	예	측														
적	당	히	훈	잡	한	전	철	안	에	들	어	서	서	다						
리	를	꼬	고	있	는	사	람	앞	으	로	심	술	긋	게						
다	가	가	본	다	.	다	가	가	기	전	에	그	가	어	편					
반	응	을	보	일	까	에	대	한	예	측	이	요	즘	에	는					
자	꾸	틀	린	다	.	미	안	한	듯	후	다	닥	일	어	서					
는	학	생	,	슬	며	시	푸	는	사	람	이	대	부	분	이					
지	만	,	내	바	지	단	에	그	의	한	쪽	구	두	가						
달	아	도	모	른	척	하	며	왜	내	앞	에	왔	냐							
는	듯	한	뻥	뻥	녀	들	이	있	어	관	상	을	잘	보						
고	다	가	가	야	한	다	.													

- 그렇다고 끈 다리를 풀라고 한마디 권해본 적은 없다. 차라리 내가 다시 피한다.

회원마당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 회원마당은 살아남을까요?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회원마당 원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원마당이 핑크가 난 것이죠. 사실 회원마당 원고 핑크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동안은 원고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회원들에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바쁘신 분들도 많고 해서 회원마당에 글을 쓰시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회원여러분께서 청탁에 응해주셔서 회원마당에 글이 실려왔습니다.

최근 회원마당에는 주제가 있는데요, 원래 예전엔 주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청탁하다 보니 회원분들께서 주제가 있는 것이 더 쓰기 편하다고 하셔서 각 호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주제가 있다보니 글이 한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교수님, 시민단체 활동가, 공무원, 현업에서 도시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회원마당에 가벼운 주제로 글을 잘 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마당은 이제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회원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써 주셔도 좋고,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들, 사무국에서 뭔가 했으면 하는 일들, 내가 당장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들 등 도시연대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글이 있으시면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회원여러분의 원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또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꼭지의 취재대로 따로 원고청탁을 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 외중에 원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회원마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분량 : A4 2장 내외(사진첨부가능)
- 원고접수 : dosi@dosi.or.kr
- 마감일 : 매 짝수월 25일



###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시범사업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시범사업이 서울시가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운영위원회정시명칭 : 강북구 우이동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운영회에 경관협정서 인가(2월 22일)를 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체결된 경관협정은 향후 5년간 유지되며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위원 및 회원들은 경관협정을 준수하고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해 유지·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경관협정서와 디자인 및 관리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지원사업<sup>24</sup>개소는 2010년 실시설계를 거쳐 시공될 예정이다.



### 남양주시 도농 4호 어린이공원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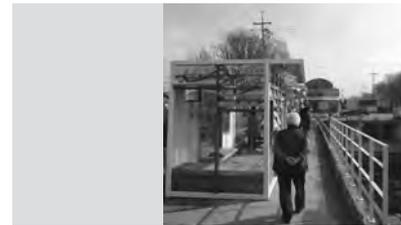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회공헌사업 『친환경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여 12월 24일 개장하였다. 1년 간 지역현황조사, 어린이 참여프로그램,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활동을 진행하였고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어린왕자 이야기에 나오는 소행성, 보아뱀, 코끼리, 장미꽃 등을 형상화한 놀이기구와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운동기구를 함께 조성하였다.



### 신내 10단지 31번째 한평공원 새로세로공원 조성



중랑구 신내동의 임대아파트에 31번째 한평공원 새로세로공원을 조성하여 지난 12월 28일 개장식으로 진행하였다. 도시연대가 임대아파트에 소재한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한평공원을 조성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개장한 새로세로공원은 복지관 뒷편 화단을 절개하여 쉼터를 조성하였는데 특히 쉼터로 진입하는 보도의 턱낮춤을 병행하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임대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 부천 오정구에 네 번째 한평공원 완성



부천시 오정구의 오정동, 원종동, 대장동 지역은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마을만들기 활동이 진행되는 곳이다. 도시연대는 원종종합사회복지관과의 파트너십을 갖고 4번째 한평공원 만들기를 통해 마을만들기활동을 지원해왔다. 지난 3년간의 한평공원 만들기 활동을 통해 복지관과 지역주민, 행정, 관련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왔으며 이번 대장동 한평공원조성을 계기로 오정구 일원의 생태보고인 대장동 주민들과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 ● 도시연대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회원의 구분과 혜택

내용구분	일반회원	자료회원	평생회원
회비	월 5천원 (연 5만원)	월 1만원 이상 (연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회원혜택	소식지 기관지 '견고심은 도시' 발행자료집 50%할인	소식지 기관지 '견고심은 도시' 발행자료집	소식지 기관지 '견고심은 도시' 발행자료집
도시연대 회원은 도시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 및 모임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도시연대 사무처로 연락바랍니다.			

## ● 회원가입 방법 및 회비납입처

도시연대홈페이지 [www.dosi.or.kr](http://www.dosi.or.kr) 회원가입란을 이용하시거나, 사무처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735-6046)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시연대로 보내신 후 회비 납입이 확인되면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회비를 납부하실 때는 회원님의 성함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09901 - 04 - 005911 (예금주 : 견고심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11 · 12월

강연주, 박미호, 박영희, 임철희, 정지범, 정현승, 한영식

### 평생회원

건아컨설팅트, 김금자, 김남석, 김연금, 김은희, 김정민, 김한준, 김홍일, 노관섭, 대한주택공사노동조합, 도시철도노동조합, 문홍길, 배기목, 신한은행, 안상욱, 여경락, 윤인숙, 전병선,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 연회비

- ▶ 50,000원 고은정, 김민보, 김승현, 김영준, 김응주, 민동걸, 양재희, 윤인영, 이진실, 장수정
- ▶ 100,000원 류중석, 박소현, 박승자, 박현욱, 배기열, 윤주선, 이경락, 이원성, 이춘홍, 조계순, 채문숙, 최봉문, 최준호, 최효승, 허윤선

## ● 도시연대에 회비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 11월

▶ 5,000원 강광애, 강대균, 강선영, 고광욱, 권범철, 기 일, 김간현, 김갑봉, 김대욱, 김민수, 김수경, 김원숙, 김원혜, 김은희, 김재영, 김정기, 김준우, 김태섭, 김현호, 남지원, 노상주, 노영순, 노혜진, 류상규, 모숙자, 민경태, 박광범, 박세훈, 박현희, 배우철, 변창흠, 서한림, 손광식, 송경호, 신성희, 심승희, 심영빈, 안승우, 안태호, 안현진, 안현찬, 안혜경, 양경진, 양승전, 양창화, 엄대호, 엄홍석, 오정섭, 오태돈, 유나경, 윤 진, 이경란, 이꽃님, 이상필, 이수연, 이 숙, 이영범, 이영석, 이영은, 이왕기, 이윤철, 이일순, 이주경, 이주희, 이진현, 이진화, 임병택, 임명희, 임성빈, 임은아, 장길수, 장남중, 장누리, 장순옥, 장정화, 전민규, 전정옥, 정경모, 정동식, 정병순, 정재훈, 조경희, 주관수, 채준환, 최광미, 최민정, 최봉준, 최윤음, 최주영, 최혜선, 한동규, 한명섭, 한홍규, 홍순필, 황아미

▶ 10,000원 강구덕, 강동진, 강명근, 강송희, 강현수, 강호철, 고재경, 고정민, 공윤환, 구자인, 권성철, 김경민, 김기남, 김기호, 김대식, 김도년, 김동주, 김동환, 김두연, 김미숙, 김상규, 김상규, 김상수, 김세용, 김숙희, 김신성, 김연희, 김영옥, 김용성, 김은진, 김인희, 김재철, 김정석, 김정희, 김종갑, 김종동, 김주환, 김진범, 김진호, 김천근, 김태준, 김형만, 김혜승, 노유진, 류승한, 류홍빈, 마을과아이들, 문병섭, 박미희, 박병걸, 박상위, 박상필, 박송희, 박영민, 박용연, 박인권, 박종기, 박종철, 박준호, 박준환, 박홍근, 박환희, 박훈영, 배웅규, 배중철, 백호정, 변성환, 서순탁, 서승환, 서중선, 성주인, 송미령, 송양선, 송영석, 송주철, 신현요, 심경미, 심은주, 안인섭, 안재홍, 안창모, 양귀자, 양재섭, 양재혁, 양해근, 엄철호, 오석준, 오순희, 오승재, 오천진, 원선미, 원창수, 유지현, 윤혁경, 윤효규, 이경미, 이광제, 이권형, 이미자, 이병설, 이상민, 이성민, 이소영, 이승지, 이영희, 이용연, 이원강, 이은엽, 이제선, 이주현, 이준석, 이지경, 이태문, 이혁주, 이혜연, 임선영, 임승재, 임유경, 장성수, 장영희, 장옥연, 장은선, 장준호, 장진옥, 전미현, 전민정, 정문수, 정 석, 정선희, 정수은, 정윤희, 정현순, 정호열, 조경래, 조민숙, 조성진, 조영태, 조위래, 조현세, 주덕진, 지경민, 진경아, 진영호, 진영환, 차주영, 차희연, 천의영, 최돈용, 최명실, 최문환, 최성은, 최승범, 최완규, 최재용, 최지연, 한국회, 한상숙, 한상진, 한수경, 한정근, 해 램, 허 역, 허윤주, 홍승모, 황경수, 황영수, 황주영, 황희정

- ▶ 20,000원 강준모, 김성미, 방이정, 윤인숙, 윤진영, 이상훈, 이진호, 인태연, 최치환
- ▶ 30,000원 김일숙
- ▶ 50,000원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회비납부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전화 02)735-6046, 또는 e-mail [dosi@dosi.or.kr](mailto:dosi@dosi.or.kr)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연대에 회비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12월

▶ 5,000원 간광애, 강대균, 강선영, 강송희, 고광욱, 권범철, 기 일, 김간현, 김갑봉, 김기남, 김대욱, 김민수, 김수경, 김원숙, 김원혜, 김은희, 김재영, 김정기, 김준우, 김태섭, 김현호, 남지원, 노상주, 노영순, 노유진, 노혜진, 류상규, 모숙자, 민경태, 박광범, 박미호, 박세훈, 변창흠, 손광식, 송경호, 신성희, 심승희, 심영빈, 안승우, 안태호, 안현진, 안현찬, 안혜경, 양경진, 양승전, 양창화, 엄홍석, 오정섭, 오태돈, 유나경, 윤 진, 이경란, 이꽃님, 이상필, 이성민, 이수연, 이 숙, 이영범, 이영석, 이영은, 이왕기, 이윤철, 이일순, 이주경, 이주희, 이진현, 이진화, 임명택, 임명희, 임성빈, 임은아, 임철희, 장길수, 장남중, 장누리, 장순옥, 장정화, 전민규, 전정옥, 정경모, 정동식, 정병순, 정재훈, 조경희, 주관수, 채준환, 최광미, 최민정, 최봉준, 최엄윤, 최주영, 최혜선, 한동규, 한명섭, 한흥구, 홍순필, 황아미

▶ 10,000원 강구덕, 강동진, 강명근, 강현수, 강호철, 고재경, 고정민, 공윤환, 구자인, 권성철, 김경민, 김기호, 김대심, 김도년, 김동주, 김동환, 김두연, 김미숙, 김상규, 김상수, 김세용, 김숙희, 김신성, 김연희, 김영옥, 김인희, 김재철, 김정석, 김정희, 김중갑, 김중동, 김중태, 김주환, 김진범, 김진호, 김천곤, 김태준, 김형만, 김혜순, 노승대, 류승한, 류홍번, 마을과아이들, 문병섭, 박미희, 박병걸, 박상위, 박상필, 박승희, 박영민, 박용연, 박인권, 박종기, 박종철, 박준환, 박홍근, 박환희, 박훈영, 방이정, 배용규, 배중철, 백남철, 백호정, 변성환, 서순탁, 서승환, 서재원, 서중선, 서한림, 성주인, 송미령, 송양선, 송영석, 송주철, 신현요, 심경미, 심은주, 안인섭, 안재홍, 안창모, 양귀자, 양재섭, 양재혁, 양해근, 염철호, 오세희, 오순희, 오승재, 원선미, 원창수, 유지현, 윤진영, 윤혁경, 윤효규, 이경미, 이광제, 이권형, 이병설, 이상민, 이소영, 이수빈, 이승지, 이영희, 이용연, 이원강, 이제선, 이주현, 이준석, 이지경, 이치경, 이태문, 이혁주, 이해연, 임삼진, 임선영, 임승재, 임유경, 장성수, 장영희, 장옥연, 장은선, 장준호, 장진욱, 전미현, 전민정, 정문수, 정 석, 정선희, 정수온, 정윤희, 정지범, 정현순, 정현승, 정호열, 조경래, 조민숙, 조성진, 조영태, 조위래, 조현세, 지경민, 진경아, 진영호, 진영환, 차주영, 차희영, 천의영, 최돈용, 최명실, 최문환, 최성은, 최승범, 최완규, 최재용, 최지연, 한국희, 한상욱, 한상진, 한수경, 한정근, 해 람, 허 역, 허윤주, 홍승모, 황경수, 황영수, 황주영, 황희정

▶ 20,000원 강준모, 김성미, 박준호, 양기용, 오주한, 오천진, 윤인숙, 이상훈, 이인혜, 이진호, 인태연, 조정래, 최치환

▶ 30,000원 김일숙

▶ 50,000원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회비납부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전화 02)735-6046, 또는 e-mail dosi@dosi.or.kr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1994

「과천선 안전실태 조사보고서」  
 「주택가 생활도로 정책개선방안 및 스쿨존 설치에 대하여」  
 「철도청 환경오염실태 조사보고서」  
 「우리나라 이면도로 특성을 고려한 과속방지턱 기초연구」

1995

「생활교통환경과 보행권회복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자전거교실」  
 「차치시대를 위한 교통계획개선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1996

기관지 「시민교통」창간 준비호, 「교통사고 장애아의 사회 적응에 관한 조사연구」  
 「어린이 보호구역의 문제점과 현실화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교통혼잡관리협회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1997

소식지 「걷고 싶은 서울」  
 「어머니와 함께하는 녹번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인사동거리 활성화 방향과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1998

기관지 「걷고 싶은 도시」 7·8월호(특집 : 인사동)  
 기관지 「걷고 싶은 도시」 9·10월호(특집 : 보행조례)  
 「희망의 도시 가꾸기 정책의제」  
 「걷고 싶은 도시 달리고 싶은 자전거 도로」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인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인사동 역사문화탐방지도「인사동 살펴보기」

## 1999

- 기관지 「걷고 싶은 도시」 1·2월호(특집: 주민참여에 대하여)
- 기관지 「걷고 싶은 도시」 3·4월호(특집: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주민참여)
- 제1회 전국 워크숍 자료집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주민참여에 대하여 -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 인사동 역사문화유적 탐방집 「인사동 살펴보기」
- 제2회 전국 워크숍 자료집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주민참여에 대하여」
- 기관지 「걷고 싶은 도시」 5·6월호(특집: 장애가 없는 도시만들기)
- 기관지 「걷고 싶은 도시」 7·8월호
- 기관지 「걷고 싶은 도시」 9·10월호
- 「문화의 거리 조성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 「지하철, 이제는 서비스다」
-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없다」

## 2000

- 「한강시민공원 접근성에 관한 조사연구」
- 「어린이 자전거 안전 교재」
- 「한강시민공원 안내 지도」
- 「부평 문화의 거리,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 「5개 도시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인사동 작은가게 살리기 진행과정 자료집」
- 「인사동 바로알기」(2000년 인사동학교 교재)
- 「인사동·북촌 살펴보기」(한글판, 영어판, 일어판)
- 「우리가 꿈꾸는 마을, 우리 손으로!!」(교양 마을학교 교재)
- 「마을을 알고 이웃을 만나는 관악 마을학교」(관악 마을학교 교재)
- 「주인과 상인이 만들어가는 우리거리」(광진 마을학교 교재)
-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도전, 마을현장 제정운동」
- 「마을만들기 2000」

## 2001

- 「Bukchon Culture-Tour」
- 인사동 학교 자료집 「2001년 인사동 역사문화 배우기」
- 「커뮤니센터로서의 구민회관을 위하여」
- 「나는 '주민참여 마을학교'에 참가한 적이 있다」(주민참여 마을학교 자료집)
- 워크숍 자료집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행정 방안에 대하여」
-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의 교통」
- 「자전거 보관소 실태 조사결과 및 이용 활성화 정책 제언」
- 「자전거를 달리게 하자」(자전거에 친숙한 도시만들기 워크숍)
- 「어린이에게 안전한 서울 만들기」
- 기관지 「걷고 싶은 도시」 3·4월호(특집: 도시와 광장)
- 「전국마을만들기대회 자료집-마을만들기 2000+2」

## 2002

- 「북촌이야기」
- 「2002 청소년 교통학교」
- 「근대 개항의 도시 인천이야기」
- 「인사동, 사람과 이야기」
- 「어린이와 함께 우리동네 북촌살펴보기」
- 「인천시 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 「2002 인사동학교 자료집-인사동 다가가기」
-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 「자전거 조례 표준화를 위한 연구」

## 2003

- 지하철과 연계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 애들아, 북촌 가자
- 인천 바다이야기
- 인천 개화기 풍속도
- 인천중구 구도심권 지역활성화와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 소도읍 육성사업 정책과 지역활성화 전략에 대한 워크숍
- 주민자치센터와 마을만들기
- 한평공원 조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주민참여 공간만들기

## 2004

-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 「인사동 뉴스레터」
- 「한평공원 만들기는 주민참여입니다」
- 「편리한 버스, 안전한 보행을 꿈꾼다」
- 「자전거 임대제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 「한평공원 만들기 -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민참여공간 만들기」

## 2005

-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사동학교 자료집)
- 「인사동 뉴스레터」
- 「주민이 만드는 우리동네, 2005 한평공원 만들기」
- 「한강중랑천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본 하천변 자전거도로 교통로 활성화 방안 연구」
- 「지하철·수도권 전철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 2006

- 「자전거조례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한 조건」
- 「임대 및 일반 분양아파트 주민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만들기」
- 「독산3동 거리미술관 만들기」
- 「주민참여 한평공원 만들기 사례를 통해 살펴본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 「한평과 골목길, 그리고 마을만들기」(성서한평공원)

## 2007

- 「가게 앞 자전거」
- 「한평공원 2007」
- 「휴식과 소통이 있는 작은 쉼터 조성\_ 경로당에서 여는 마을만들기」
- 「역사문화학교 가이드교실」
- 「한평공원 매뉴얼\_ 주민참여를 통한 한평공원 만들기」
- 「심포지움 시민이 참여하는 간판문화 개선」

## 2008

- 「가게 앞 소규모 자전거 보관대 만들기」
- 「엄마가 만드는 북촌 마을계획」

## 2009

- 「연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옥상녹화를 통한 커뮤니티 장소 만들기」
- 「자전거 도시 만들기」

# 인사동과 부평 마을만들기 사례집이 도서출판 R&C에서 출판되었습니다

10여년간의 과정과 갈등, 한계와 성과를 꼼꼼하게 기록한 '인사동에서 마을만들기를 배우다',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만들기-부평에서 길을 찾다'는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인사동에서 마을만들기를 배우다〉

- 제1장 인사동 살펴보기
- 제2장 인사동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
- 제3장 이슈파이팅 인사동  
인사동, 시민운동과 만나다/민익두개 살리기와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시민참여를 통한 인사동 바로알기/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종로연대/  
핸드메이드 인사동/인사동 골목가꾸기
- 제4장 마을만들기와 계획의 역할
- 제5장 인사동에서 마을만들기를 배우다

###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만들기〉

- 제1장 부평재래시장의 지나는 길
- 제2장 시장 재활성화 전략으로서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 제3장 조성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 제4장 노점상, 어떻게 할 것인가
- 제5장 치열하게 싸우기, 그리고 화해하기
- 제6장 힘들어도 조직만은 유지하라
- 제7장 마을만들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